

연중 제18주일

제1독서 : 이사55, 1-3
제2독서 : 로마8, 35, 37-39
복 음 : 마태 14, 13-21

순정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마태 14, 16)

강론

소리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송영진 신부 / 전동 천주교회

어떤 사람이 자기 옆집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 것을 보고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내려 주십시오.”

간절히, 또 간절히 기도를 하자, 하느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너의 집에 있는 먹을 것을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자기 집에는 곡식을 가득 쌓아 놓고, 혼자만 먹으면서 굶주리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만 하는 사람이 과연 실제로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는 굶주림의 문제가 하느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복음말씀에서 우리는 나눔과 일치, 성체성사를 봅니다. 나눔과 일치는 단순한 적선이 아니라, 상대방의 처지를 함께 하는데서 이루어집니다. 굶주리는 사람에게 밥 한 숟가락 주는 것은 지금 당장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정말 그 사람과 함께 굶는 일도 각오하는 것이 진짜 이웃사랑입니다.

지금 굶주리고 있는 북한동포들, 아프리카 난민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라도 펄펄 쏟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빵 다섯 개로 오천명이 아니라 오만명을 먹이는 기적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것은 먼저 배불리 먹고나서 찌꺼기를 조금 남겨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먹을 것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굶주리는 사람들의 배고픔의 고통도 함께 겪으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먼저 배불리 먹고나서, 나머지를 조금 덜어 주는 정도의 이웃사랑으로는, 기적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배고픈 사람은 여전히 배고픈 상태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노느라고 힘들었지?”

여름방학이 되고 학원들은 제철을 만난 듯 부족한 공부를 채워 주려는 온갖 프로그램들을 내걸었다.

학교는 역시 부족한 교과공부를 보충 한다는 보충수업을 시작했다. 학생들은 종합생활기록부에 기재할 봉사활동 때문에 머리가 무겁다. 부모는 이 모든 것들 다 떠맡느라 맘을 쏟는다. 이 모든 소동과 난리가 자라나는 새싹들의 좋은 거름이라면 무슨 걱정이라. 학원의 공부나 학교의 보충수업이나 양심의 저울에 달아보면 쓸만한 것이 못된다. 그것이 대개 인간교육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봉사활동만은 여름방학 때 할 만한 무척 값지고 소중한 사항이지만, 이 제도는 상급학교 입시 때문에 만들어진 탓에 지금 말도 많고 말썽도 많은 골칫거리이다.

영아원에 가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얼마나 될까마는, 그래도 가서 애기들하고 잠시 놀아주기라도 하면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에 추천했다가 오히려 괴롭만 주고받은 일이 있다. 영아원에 가서 두어시간 놀아 주고 돌아오는데, 보모가 뒤에다 대고 애기한테 “악아, 노느라고 힘들었지? 좀 쉬자, 응” 하더라. 비극은 이것뿐이 아니지만 더 들추지 말기로 하자.

우리 사회의 아픔은 수단과 목적의 뒤집힘에서 온다. 상처가 워낙 깊고 커서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옳을지 아무도 모른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



2000년 대희년

체계적인 신자 재교육 시급

박찬길 신부 / 사목국장

1. 지난해 발표된 우리 교구 '교세 통계표'에 따르면, 전체신자 중 주일미사 참여자는 32.1%이며, 판공성사를 보는 신자도 성탄 32.4%, 부활 30.6%로 나타났다. 이것은 결국 3명 중 1명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교세 통계표에 따르면 냉담자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동안 냉담자를 산출하는 방법이 통일되지 않아서 지난 10년간의 현상을 비교하는 것은 별의미가 없겠다. 요즘은 3년 동안 판공성사를 보지 않는 사람을 냉담자로 분류하는데, 지난해 냉담자는 전체신자의 26.6%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신자 4명 중 1명 이상이 냉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냉담자가 증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물론 그 이유를 냉담자 자신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찾아야겠지만, 여기에서는 혹시 그들에게 신앙 교육을 충분히 그리고 제대로 시켰는가 하는 점에서 반성을 해 보고 싶다.

2. 대부분 본당에서 예비자 교육 기간은 6개월이다. 이 기간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익히기에는 참으로 짧은 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 영세자들이 복음적 삶에 대해 충분히 익숙해질 수 없고 그래서 실제로 신앙과 자신의 실생활을 조화시켜 나가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다. 그 좋은 예가 사회적 통계를 보면, 신자들의 이혼율이나 낙태율이 비신자인 외교인들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3. 일반적으로 우리 신자들은 일단 세례를 받고 나면 더 이상 체계적인 교리교육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신앙은 세례 후에도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한다. 신앙은 물흐르듯 하느님을 향해 끊임없이 흘러가야 한다. 흐르지 않고 정지해 버리면 신앙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영세 후 신자 재교육은 꼭 필요하다.

4. 본당에서 실시하는 신자 재교육 실태를 보면, 직책을 맡고 있는 구역장, 반장, 그리고 신심 단체에 소속된 신자들을 제외하고는 교육의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하고 있다. 물론 매주일 미사 강론을 통해서, 그리고 사순절, 대림절 특강을 통해서 재교육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신자 재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겠다.

5.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현대의 교리교육」에서 성인(成人) 신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리교육은 무엇보다도 성인신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이 가장 첫째가는 형태라고 말하고 있다. 교황은 그 이유로 젊은이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어른들이 그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신앙적 삶을 보여 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른들의 신앙이 교리교육을 통하여 쇄신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예비자 교육기간으로 교리교육이 그쳐버린다면 교리교육이 무의미하다고 지적하면서 지속적인 교리교육을 역설한다. "그러므로 교리교육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리교육이어야 합니다. 교리교육이 성숙의 시발점에서 중단되고 만다면 정말 무용한 것이 될 것입니다"(현대의 교리교육 43항).

6. 오늘날 갈수록 냉담자가 증가하고, 신자 3명 중 1명만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분위기 속에서 성인신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리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라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인신자들을 위한 교리반이 운영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제안하고 싶다.

전주 성식노트사
(구 신일노트)
문구류, 사무용품, 칠관 도소매
오 태 환(그 라 또)
김 혜 춘(힐데가르다)
전일상호신용금고 옆
☎ (0652)75-2401, 2502

이벤트 나라
행사기획 및 연출
기업체행사, 지역축제,
디자인, 광고대행
박 근 표(미 카 엘)
구 제일학원 3층
☎ 88-1035~7
012-666-7622

현대체육사 의료기
퀘스트 등산짐, 헬스기구, 무용복, 예
어로빅, 수영복, 게이트볼,츄리닝,유
니폼, 선물기념품, 상패, 혈압계 등
김 병 섭(프란치스코)
김 현 숙(가리따스)
창인동 천주교 상가
☎ (0653)841-6706, 842-8949

차량대여 및 임대전문 영업개시
(유) 국민렌트카
박 일 천(요한)
신역에서 진안선 중간 리키아파트 앞
☎ 본사 : 242-4442, 242-4717~9
군산영업소 : (0654) 467-6578~9

잡간

여름휴가! 온 가족이 함께 볼만한 비디오

□ 34번가의 기적 - 114분

뉴욕 34번가의 콜 백화점은 크리스에게 산타 역할을 부탁한다. 소녀 수잔은 산타를 믿지 않지만 크리스를 만나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다.

□ 바이블 루트(1~4)

그리스도교의 생성과 발전 그리고 전파과정을 성경에 기록된 길을 따라 탐사한 성서 비디오. 그 지역의 역사, 지리적 특성과 수십세기에 걸쳐 생성된 지역문화, 주민들의 삶을 돌아보고 성경의 신비를 밝혀준다.

□ 사랑의 교정 - 97분

한 교사가 학교를 떠나면서 느끼는 감회와 사제간의 정을 그린 영화. 참된 교육자의 모습과 진실된 마음의 따뜻한 교류가 서로의 마음을 열게 해 준다.

□ 인생 - 132분

시대의 슬픔을 관통하는 소시민의 인생이야기. 1940년대 중국, 부귀는 전쟁 속에서도 그림자극을 하며 운 좋게 살아남지만 자식을 잃은 슬픔을 경험하는 데.....

□ 프리윌리 - 120분

인간과 동물의 우정을 그린 영화이다. 제시는 고아원에서 도망나와 친구들과 어울려 케익을 훔쳐먹다 경찰에 쫓겨 수족관에 들어가 낙서하다 잡힌다. 경찰의 주선으로 양부모를 만나고 낙서 지우는 일을 벌로 받은 제시는 그곳에서 돌고래 윌리를 만나 우정을 키워가고..... 생명의 존엄성과 우정. 가정의 소중함을 아름답게 그리고 있다.

문의 : 성바오로 서원 ☎ 252-3398

교구 및 제 단체 소식

- 1. 교구청 휴무 : 8월5일~10일 교구청 여름휴가
 - 2. 제17차 선택주말 : 8월9일~11일 천호 피정의 집, 회비 - 40,000원, 신청및 문의 : 85-0041(교육국), 85-3637
 - 3. 가톨릭 문우회 : 8월3일(토) 오후3시 가톨릭센터 1층
 - 4. M.B.W수련회(우리시대의 영성) : 8월12일~14일 천호 피정의 집, 참가비 - 50,000원, 신청 - 85-0041(홍보과)
 - 5. 빈첸시오 중앙이사회 : 8월11일(일) 오후2시 서학동 성당
 - 6. 박용길 장로, 리영희 교수 초청 통일 강연회 : 8월8일~9일 오후7시 숲정이 어린이집(구 해성고 자리 동국아파트 옆) 문의 - 76-1253
- * 기억할 사제 : 11일 구마술(말체리노) 신부 67주기
 * 축! 영명 : 8일(성도니미코) 강인찬 신부님
 10일(성라우렌시오) 박진량, 범선배, 전대복, 박기준, 이수현 신부님

요심이 (1197) 김병오



교사초빙

1. 과목 : 영어, 불어 각1명(영어 부진공자 우대) 2. 제출서류 : 자필이력서, 교원자격증, 호적등본, 졸업증명서, 대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사본 각1통 3. 제출처 : 전주해성중·고등학교서부과224-6114 4. 서류제출마감 : 8.10(토)12시

“우리시대의 영성”

(M.B.W 수련회)

- 일시 : 8월12일(월)~14일(수)
- 장소 : 천호 피정의 집
- 참가비 : 1인 50,000원
- 신청 : 사목국 홍보과 85-0041
- 주관 : M.B.W 추진위원회

기아·아시아 딜러 영업소

송수환(다니엘) 이영자(아네스) 시트카바,샌딩,적제함보강등 10여가지 선물, 신차분보유 중고차감정 및 이전,검사,폐차대행 ☎(0652)225-0045 (전화문의 환영)

선경컴퓨터타운

삼성,삼보 및 국내외 모든 컴퓨터 총판 이병균(프란치스코) 정미선(글라라) 평화주공 1단지 입구 ☎(代)231-2237

사랑의 씨앗 수녀회 성소피정

· 대상 : 수도생활에 관심있는 교졸이상 30세미만 미혼여성 · 일시 : 8월13일~15일 오후5시 · 장소 : 사랑의 씨앗 수녀회 광주분원 · 회비 : 15,000원 · 준비물 : 세면, 필기, 미사도구 · 문의 : (062)571-3004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성소피정

· 일시 : 8월17일~18일 오후4시 · 장소 : 부산 수녀원 피정의 집 · 준비물 : 미사준비, 필기구, 회비(7천원) · 신청및 문의 : (051)514-1773 (8월15일까지)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노송동** 주임신부 82-9663 사 부 실 82-9661 주임신부 범영 배
F A X 82-9664 수 너 원 82-9662 사목회장 김동주

1. 사목회 상임위: 7일(수) 후 8시, 사랑방
2. 복사단 소중: 8일(목) 전 8시 30분
* 새벽 전 5시 30분 미사
3. 모임: ①울뜨레야, 기우회-오늘, 공식미사 후
②성모회, 자모회-7일, 어머니미사 후
③장우회, 대건회-11일, 공식미사 후
4. 금주 전례: 새벽-중노 1구역, 저녁-중노 2구역
공식 안내-장우회, 해설-최광식
독서-①이수원 ②분선자
신자들의 기도-김종호 부부
봉헌-진도열 부부
5. 차주 전례: 새벽-중노 3구역, 저녁-중노 4구역
공식 안내-대건회, 해설-이수원
독서-①서남석 ②유제간
신자들의 기도-송석창, 윤은희
봉헌-윤석연 부부
6. 금주 청소: 인후 7,8반
7. 차주 청소: 인후 9,10반

*** 서학동** 주임신부 84-8307 사 부 실 86-4929 주임신부 이종원
수 너 원 84-2276 사목회장 민병부

1. 청년수련회: 8월10일(토)~11일(일) 동산면 예비군 수련장, 대상-성당내 청년, 회비-2만원
2.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15일(목) 전 6시, 전 10시
※ 미사에 참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금주 모임: ①푸리아-오늘 후 2시, 성전
②사목회-6일(화) 후 8시 30분, 사무실
③자모회-8일(목) 레지오회합 후, 회합실
④울뜨레야-8일(목) 후 7시 30분, 회합실
4. 차주 모임: ①프란치스코삼회-11일(일) 후 2시, 강당
②성심회-14일(수) 전 10시30분, 회합실
5. 청소 안내: ①금주-사랑하올 어머니Pr.
②차주-사랑의 생Pr.

*** 복자** 주임신부 86-3453 사 부 실 86-3455 주임신부 정승현
수 너 원 86-3454 사목회장 박상기

1. 오늘: 성소후원회비 납부하는 날
2. 사무원 휴가: 6일~11일
3. 청소년 단합대회: 10일~11일, 임실군 성수 야영장
4. 금주 모임: ①대건회-공식미사 후
②사목회-저녁미사 후
5. 주간 모임: ①구역분과회-6일 전 10시
②안나회, 자모회-8일 전 10시
③여성분과회-10일 전 10시
6. 차주 모임: ①요셉회-공식미사 후
②푸리아-후 2시
7. 성모승천대축일 성당 대청소: 10일(토) 전 10시
8. 금주 전례: 해설-최육남, 독서-김홍연 부부
봉헌-조백환 가족
9. 차주 전례: 해설-김순영, 독서-육종만 부부
봉헌-조종업 가족
10. 성모승천대축일 전례: 해설-오교성, 독서-박상기 부부
봉헌-김응식 가족

*** 전 동** 주임신부 81-0098 사 부 실 84-3222 주임신부 김 불 회
보좌신부 82-7245 수 너 원 82-9234 보좌신부 송영진
F A X 82-6232 유 처 원 84-8347 사목회장 주한

1. 금주 모임: ①제축글라라 형제회-후 1시 30분
②에덕의 모후 푸리아-후 3시
③요셉회-후 6시
④울뜨레야-후 8시
2. 주간 모임: ①단불회-6일 전 10시
②베네타회-7일 전 11시
③엘리사벳회-7일 전 11시
④여성단체 임원 모임-7일 후 3시
⑤다비드회-10일 후 3시
3. 차주 모임: ①자모회-전 10시
②일치의 모후 푸리아-후 2시
③사목회-후 8시
4. 고점 전례 안내
1) 고백성사-평일미사 후
2) 혼인면담-매주 토요일 후 4시
3) 성체강복 및 조배-매월 첫 목요일 전 10시
4) 병자 봉성제-매월 첫 금요일 후 2시
5) 유아세례-홀수달 둘째 토요일 후 3시
6) 자랑 축복식-홀수달 마지막 주일 공식미사 후

※ 성지 개발 헌금 정성껏 봉헌바랍니다.

*** 상 관** 주임신부 85-6654 사 부 실 85-6652 주임신부 한봉섭
F A X 85-6652 수 너 원 85-6653 사목회장 강덕용

1. 금주 모임: ①요셉회, 동정녀들의 모후Cu.-공식미사 후
②성우회-6일(화) 후 8시, 강당
2. 차주 모임: ①안나회-다음 주일
②장년회-17일(토) 후 8시
3. 지속적인 성체조배: 8일(목) 저녁미사 후~금요일 미사 전
4. 남성 제54차 푸르실로 수료: 김준호(토마)
5. 감사!: 이장순(2만원) 누계: 2,494,000원
6. 성당 청소: 금주-사랑하올 어머니Pr.
차주-갯벌Pr.
7. 금주 전례: 해설-최원규, 독서-①강춘수 ②오민숙
봉헌-하월봉 가정
8. 차주 전례: 해설-우정숙, 독서-①한동욱 ②이순자
봉헌-이명수 가정

*** 평회동** 주임신부 232-5001 수 너 원 232-5004 주임신부 이상섭
F A X 232-5003 사 부 실 232-5005 사목회장 강상근

1. 사목회 상임위원 회의: 6일 후 8시(회관)
2. 구역 반 회장 회의: 6일 전 10시 30분
3. 오늘 모임: ①평화의 여왕Cu.-후 2시30분
②성지회-공식미사 후
4. 차주 모임: 천주교 모후Cu.-후 2시 30분
5. 성전 신축 봉헌금 신의 구좌(1구좌: 100만원): 장정순16,
소계: 16 총계: 153.3, 감사합니다.
6. 성전 신축을 위한 이발 봉사: 11일 전 10시-후 4시, 제1회합실
7. 선포기 기증: 강정자 2대, 조장년 1대
8. 여름신앙학교 후원: 2-4만 2만, 4-2만 2만, 하늘의 문 2만,
성실하신 정녀 2만, 김홍기 3만,
임명환 3만, 김재봉 5만, 사목회 10만
9. 성전신축을 위한 주유권 구입에 우리 모두 참여합시다.